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백화점 등 최대 70% 할인

내달 1일부터 2주간…2만7000여 점포 참여

내달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내수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전국 200여개 전통시장, 11번가 등 16개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2만 7000여개 점포가 참여한다. 업체별로 최대 50~70%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품행사 및 사은품 확대 등 기존 세일행사와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은 720개 브랜드 최대 70% 할인을 제공하고, 이마트도 100여개 품목 최대 50% 할인 혜택을 준다. GS25는 ‘1+1’ 또는 ‘2+1’ 상품을 기존 600개에서 700개로 확대한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모든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연례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근 기자

SKT ‘T효자손’ 서비스 개시

부모님 스마트폰 화면 원격으로 공유

SK텔레콤은 부모님 스마트폰 화면을 원격으로 보면서 사용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T효자손’ 서비스를 출시했다. 어르신이 스마트폰에 있는 T효자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사전에 등록된 자녀에게 원격 영상 공유를 요청해 자녀가 수락하면, 스피커폰을 통해 음성통화가 연결된 뒤 어르신의 스마트폰 화면이 자녀의 폰화면에 바로 공유되는 방식이다. 자녀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부모님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보고 각종 기능을 작동시키면서 부모님이 궁금해 하는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도울 수 있다.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금융결제기 발행할 수 있는 앱 실행 시 원격 공유 기능이 제한된다. 부모용 앱은 LG전자 폴더폰 ‘와인스마트 제즈’와 ‘클래스’에 기본 탑재돼있으며, 삼성전자 ‘갤럭시폴더3G’, ‘갤럭시폴더 LTE’ 등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9월 중 제공될 예정이다. 자녀용 앱은 2014년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T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부가서비스 요금은 없으며, 데이터요금만 부과된다.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영근 기자

이통3사 ‘애플워치’ 판매 개시

애플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의 판로가 확대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3일부터 애플워치의 판매를 시작한다. 애플워치는 알람과 시리 음성지원, 운동량 및 심박수 측정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 다양한 시계줄로 취향에 따른 디자인 변경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강남지영점과 신촌지영점, 종각 T월드 카페 등 서울 시내 5개 주요 매장을 통해 애플워치를 판매한다. 연말까지 판매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을레에비뉴와 M&S 성대입구점 등 서울 주요 매장 12곳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애플워치 판매점을 방문하면 ‘아이폰’에 설치된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 ‘PASSBOOK’을 통해 ‘애플워치 액세서리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23일 서울 강남 지영점을 시작으로 서울 코엑스, 경기 분당, 울산, 대전 등 7개 매장에서 애플워치 판매를 시작한다. 한편 이마트도 23일부터 이마트몰을 통해 애플워치를 온라인 판매한다. 애플숍이 입점한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일하게 만나볼 수 있다.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채널명 변경 추진

7월 야심차게 개국한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이 불과 2개월 만에 채널명 변경을 추진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최근 채널명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10월 용역이 마무리된 뒤 채널명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채널명 교체를 추진하는 이유는 출범 당시 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50%)와 농협경제지주(4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5%)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농협이 대주주로 있다는 점을 들어 ‘하나로 홈쇼핑’ 등이 새 채널명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채널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용역업체에서 채널명 변경을 위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주주에게 이를 알릴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송편 빚기 번거롭죠? 해동만 하면 OK!

명절음식 준비 도와주는 제품들

피코크 송편, 전자레인지로 간편 조리
나물·전·산적 간편 조리 제품도 인기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주부들 입장에서 음식 준비 걱정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명절 음식들은 재료 준비에서부터 조리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다. 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 맛에 대한 부담도 빼놓을 수 없다. 요리 시간과 수고를 덜어주는 도우미 제품들을 활용하면 한결 편하게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

●나물 전용 양념

명절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각종 나물 무침이다. 언뜻 간단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나물무침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념재료가 들어간다. 또한 간을 딱 맞추려면 쉬운 난이도의 요리는 아니다.

청정원이 최근 출시한 ‘나물&엔’을 활용하면 누구라도 실패 없이 손쉽게 나물무침을 만들 수 있다. 나물&엔은 부가적인 재료 없이 나물 반찬을 한번에 완성할 수 있는 전용 양념이다. 나물 반찬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춧가루, 볶음참깨, 식초, 파, 마늘, 생강, 천일염 등이 모두 들어 있어, 별도의 양념을 준비할 필요 없이 나물 원재료에 나물&엔을 넣고 30초만 무쳐 주면 된다. 나물 종류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소한맛’, ‘새콤한맛’, ‘매콤한맛’ 3가지로 출시됐다. 명절에 주로 먹는 삼색나물인 숙주, 시금치, 도라지는 나물&엔 고소한맛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나물&엔은 1회분에 3~4인분의 나물 반찬을 만들 수 있도록 스틱 형태로 포장되어 있어 양 조절도 편리하다.

●전 부치는 시간 줄이는 냉동제품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면서 또 가장 준비하기 수고스러운 것이 바로 전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냉동제품을 이용하면 전 부치는 시간과 수고를 확 줄일 수 있다.

사조대림 ‘대림선 산적꼬치 세트’는 손이 많이 가는 산적요리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제품이다. 맛살, 햄, 단무지를 산적꼬치에 알맞은 크기로 잘라 놓고, 산적꼬치용 나무꼬치를 한 세트로 구성해 사이즈와 용량을 동일하게 맞춰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오투기 ‘부드럽고 촉촉한 동그랑땡’은 100% 국내산 돼지고기와 야채를 사용한 제품으로 풍부한 육즙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다. 특히 동그랑땡의 개당 중량이 28g으로, 크고 두툼해 푸짐한 느낌이다. 국내산 돼지고기와 대파 양파 당근 부추 마늘 깻잎 등 국내산 야채만을 사용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산적에서 갈비까지 두루 활용하는 고기 양념

차례 음식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고기산적이다. 시판되고 있는 고기 양념 제품들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산적 맛을 낼 수 있고, 갈비찜, 갈비구이 등 가족들이 모일 때 준비하는 고기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청정원 ‘소갈비 양념’은 명품 나주배를 비롯해 각종 과일을 그대로 갈아 넣어 맛이 풍

부하고 부드럽다. 또 와인을 넣어 고기의 누린내를 잡고 깔끔한 맛을 살려 준다. 더욱 빠르고 손쉽게 산적을 준비하려면 냉동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아워홈 손수 ‘다져만든 수라산적’, 풀무원 ‘올바른 삼산적’, 청정원 ‘리얼 불맛 통살산적구이’ 등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다.

●냉동 송편

추석 송편도 냉동 제품으로 출시되어 있다. 이마트 피코크 송편은 냉동 보관해 뒀다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흰 송편’과 ‘모싯잎 송편’, ‘호박 송편’, ‘복분자 송편’ 등 4종으로, 각각의 재료로 다채로운 색을 내 더욱 먹음직스럽다. 흰 송편은 우리 쌀과 고소한 참깨로 정성스럽게 만든 전통 그대로의 송편이고, 모싯잎 송편과 호박 송편, 복분자 송편은 각각 푸른빛, 노란빛, 분홍빛으로 명절 상을 화사하게 만들어 준다. 실온에서 1~2시간 자연 해동만 해서 바로 먹거나, 냉동 상태에서 찜기 또는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함께 일하고 싶은 CEO 1위 ‘이건희 회장’

사람인 설문…김범수다음카카오 의장 2위

같이 일하고 싶은 CEO 1위에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올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성인남녀 2151명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CEO’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 회장은 14.4%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신경영을 통해 삼성그룹은 물론 한국경제를 이끌었고, 이 같은 사례들이 직장인들에게 깊이 각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1년5개월째 병원에 입원해있다.

2위는 카카오톡 신화를 쓴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13.9%)이다. 김 의장은 2008년 아이폰 탄생에 영감을 받아 2010년 무료 메신

저 카카오톡을 선보였다. 5년 뒤 다음카카오는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IT 공룡으로 성장한다.

이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1.8%)·이원영 제니퍼소프트 대표(5.7%)·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4.6%)가 뒤를 이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4.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3.8%),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3.3%), 김상현 네이비 대표(2.9%),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2.8%)가 6~10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함께 일하고 싶은 CEO의 가장 닳고 싶은 부분으로 ‘사업 실행 및 추진력’(21.4%)을 꼽았다. 이밖에 ‘변화와 혁신 능력’(19.3%), ‘리더십’(17.3%), ‘조직관리 능력’(13.2%) 등을 거론했다.

최현철 기자 choih2@donga.com

中 강타 모바일 슈팅게임 ‘백발백중’ 국내 서비스

넷마블게임즈, 아이템 중정 이벤트 시행

하반기 모바일게임 기대작 ‘백발백중(사진)’이 드디어 출격했다.

넷마블게임즈는 ‘백발백중 for Kakao’를 22일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으로 동시 출시했다. 중국과 대만 현지 스토어 매출 1위에 등극하며 모바일 슈팅게임 붐을 일으킨 화제작. 동선을 최소화하고 사격에 집중하는 조작 시스템으로 슈팅게임은 모바일 환경에서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수준 높은 타격감과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선보였다. 아울러 스토리를 따라 미션을 공략하는 ‘미션 모드’와 끊임 없는 전투가 가능한 ‘무한 모드’, 이용자 간 총격전을 즐길 수 있는 ‘대전 모드’, 최대 4인이 팀을 이뤄 거대 보스를 공략하는 ‘레이드 모드’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췄다. 19일부터 4일간 진행한 테스트에서도 재방문을 80% 이상 기록하는 등 합격점을 따냈다.

넷마블은 출시를 기념해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게임재화와 수류탄, 총기성장카드,



확성기를 증정한다. 이정호 넷마블 본부장은 “다양한 장르를 서비스한 넷마블의 노하우를 집약해 모바일 슈팅게임의 대명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페이지(ne.s.netmarble.net/event/wefire/73)와 공식 카페(cafe.naver.com/100shots100hi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한우선물, 더 알뜰하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23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열고 안심과 사골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모델들이 한우 선물세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